

연구논문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김석호*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가 그들의 마음에서 왜 형성되는가를 살펴본다. 이 논문은 비혼과 출산 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용한 자원의 부족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가진 영향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기존 청년 담론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자리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꿈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청년의 비혼과 출산 기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분석의 결과, 청년의 비혼과 출산 기피는 일자리와 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청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자원보다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미래에 예상하는 계층 위치와 사회이동 가능성을 통제했을 때 현재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효과가 사라졌다. 이는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판단하는 청년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출산과 결혼을 선택지에서 제외해 버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년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비혼이나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 청년, 결혼, 비혼, 출산, 출산 기피,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지원, 현실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전망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seokhokim@snu.ac.kr).

I. 서론

한국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사회로 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을 기록한 후,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상승해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듯했으나, 초저출산 상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유계숙 2013). 지난 5년(2015~2019)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통계청 2019)으로, 2019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이다(OECD 2020). 대한민국은 근대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제조업 대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에서도 뛰어난 인적 자원을 무기로 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영역에서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청년의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변수정 2017). OECD family database(2020)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제도적·문화적으로 혼외출산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망을 갖추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혼인 내 출산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은 비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의 결혼과 출산 결정은 과거의 이력, 현재 상황, 미래 전망, 그리고 정치·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은 개인에게 주어진 협소한 기회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관계가 있으며, 본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투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청년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 행위가 가진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한 인구학적 경로에 대한 강조와 대중적 처방에 의존해온 경향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을 출산의 도구와 수단으로 본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년을 배우고,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설계하는 주체적인 행위자로 보지 않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1).

물론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와 비용지원 대신 실천과 인식 중심으로 접근법을 전환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기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도 과거 정책이 보인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출산 문제를 기혼자 중심의 사안으로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다. 가령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집중투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등을 망라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정책은 생식건강지원만 담고 있다. 게다가 예산의 절반 정도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사용한다. 청년의 마음과 삶,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빠진 것이다. 정리하면, 결혼과 출산은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마주하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연속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생애라는 선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혼-출산-양육-교육-노후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우르는 연속적 관점을 탑재하지 않고 있다.

1998년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직업의 안정성은 낮고 임금 수준은 지체되어 있으며, 일자리의 질은 악화일로에 있다(한국의 사회동향 2020).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능력을 갖춰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이전에 정상적 경로로 받아들여졌던 기준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이다(김석호 외 2017; 김창인·전병찬·안태언 2019). 과거에는 미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친밀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이 지원해줄 수 있었지만, 그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

다. 결과적으로 청년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분화되면서 세대 내 이질성이 심화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신의 미래 삶의 경로가 결정된다고 믿는 청년이 증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해지고 있음이 다수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정해식 2020). 세대 내 불평등은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상상할 수 있는 소수와 현재의 고단한 삶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불안한 미래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야 하는 다수로 나뉘는 상황을 창출하고 있다. 이를 결혼과 출산에 국한해 생각해보면 미래를 안정적으로 대비하며 결혼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양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준만 2016; 권경우 2016). 후자에 속하는 청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은 생애에서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큰맘을 먹고 저질러야 하는 위태로운 결단이 된 것이다.

청년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와 인생에서 비중을 둔 가치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결정한다.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출산 정책도 청년의 생애 전체에서 결혼과 출산이 갖는 비중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의 기획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기피가 그들의 마음에서 왜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청년의 결혼과 출산 기피를 청년에게 주어진 일자리와 소득 등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전체 이야기의 절반만 보여주는 것이다(강준만 2016; 구재선·서은국 2016). 청년의 비혼과 출산 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용한 자원과 더불어 현실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이 가진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 미래의 전망 등이 이들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한국 사회 저출산과 청년의 현실 인식

1.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있는 청년의 인식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를 통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청년사회·결혼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율 전망에서 청년의 80% 이상이 2025년에는 현재보다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상은 본인이든 주변의 또래가 출산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청년 중 41%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52%가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¹⁾ 청년 중 결혼을 필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다. 남성은 43.5%, 여성은 38.1%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30대의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는 입장(44.6%)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48.1%) 간 균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20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결혼을 인생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확연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로도 확인되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등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한국의 사회동향 2020). 이 추세는 미혼 청년 사이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20~39세 미혼 청년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8년에 남성과 여성 각각 75.5%와 52.1%에서 20년이 지난 2018년 각각 38.4%와 23.5%로 급락했다.

1) 저출산을 논하면서 청년의 결혼 이행 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먼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 사회의 출산 대부분이 결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2020년 현재 약 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 내에서 압도적으로 낮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은 2018년에 남성과 여성 각각 54.4%와 66.8%에 달했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원인은 다양하고 하나의 설명으로 해소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은 가능하다. 첫째, 취업 및 경제적 부담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결혼 연기와 포기이다. 둘째,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기피이다(최영미·박윤환 2019). 그러나 이 두 원인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쪽의 이유를 과장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한 이해로 귀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입안된 정책은 현실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청년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로 답하기 불가능한 질문이지만, 취업, 주거, 가족관계, 성 평등, 복지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조건, 역량,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 전망을 토대로 내려지는 복합적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 주거 불안정(31.0%)을 가장 많이 언급한다. 그 뒤를 불안정한 일자리(27.6%)와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26.2%)이 따른다. 여성의 경우,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 주거 불안정이 35.0%로 가장 높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20~39세 미혼자의 1/4 가량이 결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를 꼽았다는 점이다. 경제적 여건, 사회적 조건, 가치관의 문제도 아닌, 그저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라는 비교적 모호한 응답을 하는 청년이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명확한 이유를 읽어내기 어려운 추상적인 응답은 오히려 위의 두 가지 요인-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결혼을 대하는 청년은 아마 서로 맞물려 있는 여러 이유를 동시에 고려해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고 결혼을 미래 계획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혼의 이유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여러 요인이 그 판단과 결정의 배후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삶의 여정에서 배제하는 결정은 현실적으로 이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와 걱정이 동반된다. 소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결과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포기했다’라는 표현이 곧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바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끝까지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걱정이나 포기의 개념을 떠나, 애초에 결혼과 출산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과 이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현실적인 판단과 바람은 일치할 수도, 둘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년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다(Coleman 1990; Erikson & Jonsson 1996). 한국의 청년이 특별히 다른 나라 청년과 비교해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는 없다. 청년에게 주어진 자원과 지위는 생애주기의 전개로 보았을 때 언제나 부족하며, 그들이 현실적 조건을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더 기피하게 된 것일까? 사회경제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이 과거보다 더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김영미 2016).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청년은 본원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구조변동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된 취약한 집단이므로 이들이 단순히 직업과 소득 수준과 같은 현재의 주어진 조건만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Deci & Ryan 1985; Giddens 1984). 미래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도 중요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나 선택은 미래에 발생할 사건과 관계하므로 앞으로 자신의 지위와 조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할 수 있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Gottfredson 1981; 진미정 외 2019). 즉 청년의 결혼과 출산 기피 또는 포기 현상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반영이자 이에 대한 합리적 평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청년의 시각 변화, 이에 수반되는 다가올 삶에 대한 전망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이기도 하다.

청년이 연애, 결혼, 출산을 회피하는 현상을 드러내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러한 회피의 양상과 유형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그러한 현상이 왜 출현했는가를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의 연원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한금윤 2015).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기 위해 청년이 가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유형화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초점을 둔다.

2.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저출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저출산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기존 청년 담론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때 청년이 직면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다.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해 소수만 그 수혜를 누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의 포기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Kasser & Ryan 1996; 한금윤 2015).

주희정·김민석(2018)은 청년 개인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해 결혼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²⁾ 전반적으로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이 경제적 불이익을 경험하며 결혼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규직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남성이 결혼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남성 청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결혼 이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여성 청년의 경우, 개인의 경제활동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결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크며, 장시간 일하고 고소득층에 속한 여성은 결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알려진 것보다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지는 않지만, 결혼 이행에 있어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족과 개인의 경제적인 요인들이 결혼 이행을 결정한다는 포기 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과 학계에서 지배적인 포기 담론과 관련해 지적해야 할 지점 하나는 포기 담론이 청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김창인·전병찬·안태언 2019). 이러한 무리한 가정은 청년의 결혼과 출산 포기를 설명하는 이론적 설명력을 약화시킨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Kim et al. 2018). 따라서 일괄적으로 낙관주의 혹은 비관주의로 청년을 설명하기 어렵고, 청년 내부에서도 연애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구별된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 통용되는 포기 담론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출신으로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혹은 졸업한 남학생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 담론은 20대나 30대의 세대 동질성

2) 이 연구에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가구주의 학력, 가구 금융 자산, 가구 부동산 자산, 가구 부채, 가구주 근로 여부로 측정되며, 개인의 경제활동은 응답자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연간 지출액, 근로 여부, 근로시간, 근로소득, 정규직 등을 포함한다.

을 과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김선기 2019).

포기 담론의 가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은 상당히며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또한 계층화되어 있다(김석호 외 2017; Kim et al. 2018).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청년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에 대한 예측은 달라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이 그리는 미래에 대한 상(象)과 전망을 결정한다. 즉 결혼과 출산을 인생 경로의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는가 여부는 현재 청년세대의 집합적 심상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과 사회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작동해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청년 내부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을 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은 떨어지며, 그 역도 성립한다. 바꾸어 말하면 청년이 소위 삼포 세대인 것이 아니라 청년 내부에 삼포 현상이 계층화되어 있다는 게 정확한 설명이다(김영미 2016).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자신감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은 높은 결혼 비용과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이유리 외 2017). 결혼과 출산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은 데이트 경험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다(김영미 2016). 따라서 결혼과 출산과 관련한 포기 담론은 청년 세대 내 계층화와 이질성을 고려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은 경제적인 호황기에 태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대중소비가 확산되는 시기에 유소년기를 보낸 탓에 물질적인 소비를 이전 세대보다 더 선호한다(김영미 2016). 오늘날 청년은 소비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여서 궁핍한 생활을 공포로 크게 느낀다(한금운 2015: 12). 따라서 청년층은 연애, 결혼 및 출산의 득과 실을 예측해 보고, 하지 않는 것이 득이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바람의 정도를 점친다. 특히 물질적 소비가 세대 전반의 지배적 문화인 조건에서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가까운 미래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 가설은 미래에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청년은 경제적 합리성을 발휘하여 결국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 시기를 늦춘다고 주장한다(Lutz, Skirbekk, & Testa 2006). 청년은 자신의 기대소득과 소비수준을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발휘하는데, 기대소득이 소비수준보다 낮을 때 그 사회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것으로 정의된다. 저출산의 덫 가설을 통해 한국의 청년이 예

상하는 미래의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년은 장래의 취업 가능성과 임금 수준을 전망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 결혼과 출산 가능성을 타진한다(유계숙 2013). 청년은 예상되는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기대하는 소비수준이 더 클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는 경우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체제의 구조적 불안정과 이에 맞물린 만성적인 사회 생태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인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서 광범위한 위험 회피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관계를 위험관리 차원에서 조절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장경섭 2011). 청년이 사회 재생산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위험 회피 차원에서 결혼, 출산 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청년 집단에서 노력과 성취에 따른 상향 이동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이동성 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데(조극훈 2015), 이와 달리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경우 미래 삶의 기획을 하는 데 약간 더 안정적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의 태도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갑자기 직면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인지 또는 비관적인지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지금까지 당연하게 수용되어 온 사회경제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 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미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이 태도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계층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가족의 지원이 미미한 청년은 결혼과 출산 의사에서 뚜렷하게 더 부정적인 태도를 표출한다(김영미 2016). 가용한 자원이 없음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그 결과로 저출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과 저출산을 연관 짓는 연구들은 일자리와 소득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해법 제시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반쪽만 다루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사회구조변동과 경제구조변동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된 취약한 집단이므로 단순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본인의 직업과 소득수준과 같은 현재의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결혼

과 출산에 대한 의사나 선택여부 등은 미래의 시점을 담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신의 지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가진 청년의 결혼과 출산 기피 또는 포기에 관해 기존 연구와는 다른 차별적인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 논문은 청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객관적 조건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이 직면한 현재의 객관적 조건에 더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청년의 결혼과 출산 기피 또는 포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즉 미래에 다다를 수 있는 계층적 위치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전체 인생 설계에서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선택지에 포함하는 데 있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2016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20~34세 8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가치관 조사』이다. 이 자료는 조사 당시 통계청에서 공표한 한국 청년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본에 바탕을 둔 조사이다. 응답자 중 남성 52.1%, 여성 47.9%이다. 연령대는 만 20~24세 34.4%, 25~29세 31.3%, 30~34세 34.4%로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중·소도시 거주자가 52.2%로 대도시의 47.8%보다 약간 많으며, 현재 재학 중이거나 최종 학력을 응답한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혹은 재학 중이 68.4%로 가장 많다. 개인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 미만인 70.5%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수입이 있다는 경우는 12.6%에 불과했다.

이 논문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것들을 얼마나 꿈꾸는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추출된 집단 구분을 종속변수로 삼았다. 이후 본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는 독립변수들이 청년들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자료의 기초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표본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	평균
성별	여성	389	0.48
	남성	428	0.52
연령	20~24	281	0.34
	25~29	256	0.31
	30~34	280	0.34
교육수준	고졸 이하	67	0.08
	전문대 졸	135	0.17
	4년제 졸	559	0.68
	석사 이상	56	0.07
월 가구소득	0~200만 원 미만	132	0.16
	200~300만 원 미만	138	0.17
	300~400만 원 미만	137	0.17
	400~600만 원 미만	207	0.25
	600만원 이상	203	0.25
종교 유무	종교 없음	482	0.59
	종교 있음	333	0.41
거주지 규모	중소도시 및 시골	428	0.52
	대도시	389	0.48
이념	진보	257	0.31
	중도	431	0.53
	보수	129	0.16
실현가능성 (1~5)	연애	627	3.53
	결혼	618	3.21
	출산	728	3.10
꿈꾸는 정도 (1~5)	연애	624	3.66
	결혼	616	3.38
	출산	735	3.19
주관적 계층의식 (1~10)	현재	817	5.03
	미래(예측)	817	5.56
보유자원 (1~5)	본인	817	2.99
	부모	817	2.43
한국사회에서의 계층이동가능성	낮다	599	0.73
	높다	218	0.27

주요 독립변수들은 크게 3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객관적 자원으로 청년 개인의 교육수준³⁾과 그들이 속한 가구의 월소득⁴⁾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은 청년이 현시점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변수들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주관적 계층의식,⁵⁾ 자기 자원, 부모 자원이 포함된다. 자원변수는 13개 자원의 보유 수준을 청년 스스로가 평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요인분석을 통해 두 변수로 분류한 것이다.⁶⁾ 마지막 독립변수들은 청년들이 미래의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다루는데, 미래에 예상한 주관적 계층의식⁷⁾과 한국 사회의 계층이동가능성⁸⁾이 포함된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종교, 거주지의 규모, 그리고 이념 등이 있다. 분석 모형은 객관적 자원만 포함한 모형, 객관적 자원과 현시점 평가를 포함한 모형, 객관적 자원과 미래 전망을 포함한 모형, 그리고 모든 변수가 포함된 통합 모형 순서로 제시되었다.

IV. 분석결과: 청년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저출산

먼저 청년이 자신의 삶에서 연애, 결혼, 출산이 각각 얼마나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각각을 얼마나 꿈꾸는지(바라는지) 묻은 여섯개 변수에 대해 잠재 계층분석을 적용함으로써 <그림 1>과 같이 여섯 유형의 집단을 식별할 수 있었다.⁹⁾

3) 인원수가 가장 많은 4년제 졸업자를 기준집단으로 삼았다.

4) 분류한 다섯 집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300만~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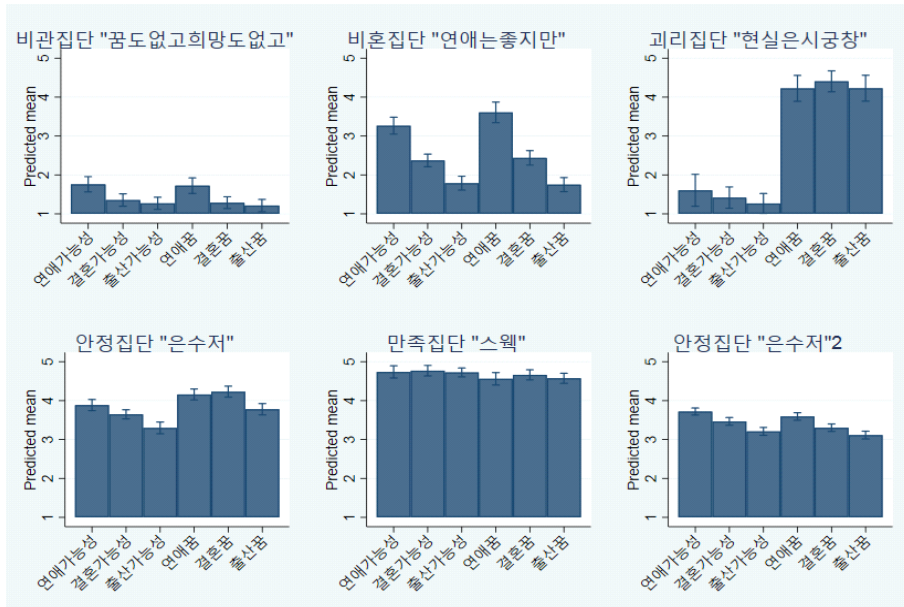
5) 최하층을 1로, 최상층을 10으로 놓고 스스로가 속하는 계층을 평가하게 하였다.

6) 13개 자원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 자원에는 다음 4개의 자원이 포함된다.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인맥, 부모의 교육수준, 본인의 해외 생활 경험. 이 변수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값)는 0.788이다. 자기 자원에는 좋은 사람을 아는 것, 도전정신, 본인의 노력, 창의적 사고, 시대적 흐름에 잘 적응하는 능력, 본인의 교육수준, 본인의 사교성, 타고난 재능, 이렇게 8개의 자원이 해당하고 신뢰도는 0.882다. 외국어 능력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7) 부모님의 나이 정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계층을 1(최하층)~10(최상층)에서 예상하도록 하였다.

8)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4점 척도로 묻은 후, 척도를 넣어 더미변수로 바꾸었다.

9) 실현가능성과 꿈꾸는 정도 모두 1(매우 낮다)에서 5(매우 높다)까지 5점 척도로 물었다.



<그림 1>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꿈과 가능성의 집단 구분

첫 번째 집단은 연애, 결혼, 출산 모두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꿈이 현저히 낮다. 특히 출산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과 꿈이 ‘매우 낮다’인 1에 가까운 1.25, 1.22에 불과하다. 소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 세대의 전형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점에서 비관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하는 인원은 105명으로 전체의 12.9%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집단은 연애는 좋지만 결혼부터는 부담스럽고 거부한다는 점에서 비혼집단이다. 이들은 연애는 어느 정도 희망도 있다고 생각(3.30)하고 꿈도 꾸지만(3.63), 결혼에 대한 꿈과 가능성은 연애에 비해 떨어지며, 출산의 경우 결혼보다도 더욱 꿈과 희망이 낮은 집단이다. 이 비혼집단에는 13.1%에 해당하는 107명이 속한다. 세 번째는 꿈에 비해 꿈을 실현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집단이다. ‘꿈은 높지만 현실은 시궁창’¹⁰⁾으로 꿈과 가능성 간에 큰 괴리를 보여준다.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비관집단과 함께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지만, 꿈에 있어서는 여섯 집단 중 두 번째로 높다. 이 집단에 속하는

10) 영화 [8 마일(8 Mile 2002)]에 나온 대사다. 이후 ‘현실은 시궁창’ 혹은 줄여서 ‘현시창’이라는 표현으로 밈화되어 인터넷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영화는 몰락한 산업도시의 전형인 디트로이트에서 하층계급 청년들의 빈곤한 삶과 랍배들을 다룬다. 주인공을 맡은 래퍼 에미넴의 자전적 경험에 담겨있다.

인원은 31명으로 많지는 않다(3.8%)이다. 네 번째 ‘은수저’는 가능성과 꿈 모두가 3점을 넘는다는 점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꿈도 꾸고 가능성도 있다고 믿는 안정적 집단으로 191명(23.4%)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집단은 비관집단의 정반대편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강하게 열망하고, 열망하는 만큼 자신들에 대한 ‘스웬’, 즉 높은 자신감과 만족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전체의 23.8%인 194명이 포함된다. 마지막 집단인 ‘은수저 2’는 네 번째 안정집단과 높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가능성 측면에서는 거의 흡사한 반면 꿈에 있어서만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집단인데 여기에는 189명인 23.1%가 속한다. 네 번째 집단과 여섯 번째 집단은 강한 유사성을 고려해 이후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는 통합하였다. 따라서 실제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집단은 총 다섯 집단이다. 이 중에서 꿈과 가능성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 만족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삼아, 어떤 변수가 한 개인을 만족집단이 아닌 다른 나머지 네 집단에 속하게끔 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다.¹¹⁾

<표 2>는 <그림 1>에서 분류된 바에 의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될 다섯 집단의 특성을 보여준다. 비혼집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어리고 만족집단이 나이가 많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반면에 성별은 집단 간 큰 편차를 보여준다. 비관집단과 비혼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이 다수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비혼집단의 경우 여성이 62%로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두 집단 모두 출산에 대한 꿈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은 두 집단의 여초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출산을 꿈꾸는 정도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¹²⁾ 반면 안정집단과 괴리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으며 특히 괴리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종교 역시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비관집단과 비혼집단의 경우 종교를 가진 비율이 30% 수준이나 다른 세 집단은 40% 이상이었다. 종교별 또는 종파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출산을 원하지 않는 비관집단과 비혼집단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 규모를 살펴보면 비혼집단과 안정집단은 대도시 거주자가 절반을 넘는 것에 비해 괴리집단은 32%에

11) 주요 분석은 만족집단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되었으나, 필요할 경우 다른 집단을 기준으로 삼은 분석결과도 제시할 것이다.

12) 출산을 꿈꾸는 정도에서 남성 평균이 3.38인 것에 비해 여성 평균은 2.99이다.

불과해 큰 격차가 있다. 괴리집단은 이념에 있어서도 다른 집단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다른 집단들은 보수보다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지만, 괴리집단의 경우만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만족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반면 비관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괴리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는데 고졸 이하가 26%에 달한다. 이는 고졸 이하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비관집단의 1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자원에서는 만족집단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괴리집단과 비관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는 본 분석에서는 활용되지 않았으나 다섯 집단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불)공정성 인식,¹³⁾ 권위주의적 태도,¹⁴⁾ 행복,¹⁵⁾ 스트레스,¹⁶⁾ 경제활동 여부 등 다섯 가지 변수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불)공정성 인식에서는 비관집단, 비혼집단, 괴리집단이 높은 반면, 안정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태도는 괴리집단이 유독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행복의 경우 만족집단이 높고, 비관집단이 낮았으며, 스트레스의 경우 역시 만족집단에서 낮은 반면 비관집단과 괴리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 비관집단에 속한 청년의 46%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만족집단은 66%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집단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관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고, 무종교자가 많다. 다른 집단에 비해 가구소득이 낮은 편이며 현재와 미

13)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시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 ‘적용되는 기준(방침)이 수시로 바뀐다’, ‘외부압력이나 “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를 5점 척도로 물었고, 종합하여 한국사회의 불공정성 인식 변수를 만들었다. 5점 척도로 높을수록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의미이다.

14) ‘어떤 사람들이 나와 반대의견을 주장할 때 그들이 미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생각이면 대중 앞에서 그 의견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다수에 의해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소수가 다시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수많은 정치인보다는 몇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가 국가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를 4점 척도로 물었고, 종합하여 권위주의적 태도 변수를 만들었다.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15)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7점 척도로 물었다. 높을수록 행복하다.

16)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귀하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를 4점척도로 물었다.

래의 주관적 자원 역시 낮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행복도는 낮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다. 다음으로 비혼집단과 괴리집단을 살펴보면 두 집단은 많은 면에서 양극을 형성하고 있다. 비혼집단이 여성, 무종교인, 대도시 거주, 진보, 상대적 고수입, 고학력, 탈권위적인 반면 괴리집단은 남성, 종교인, 중·소도시 및 지방 거주, 보수, 중간 정도의 수입, 저학력, 권위적인 특성을 보인다. 두 집단의 특성이 미국의 전형적인 진보와 보수의 이미지와 겹치며, 특히 괴리집단의 경우, 근래에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집단인 비자발적 순결주의자(INCEL: involuntary celibates)와 일정 정도 흡사한 특성을 보인다.¹⁷⁾ 다수를 차지하는 안정집단은 만족집단과 다수의 측면에서 같은 특성을 보여주나 만족집단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가 많고 가구소득이 낮으며, 한국사회를 비교적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편이다.

<표 2>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에 따른 집단 구분

	비관집단	비혼집단	괴리집단	안정집단	만족집단
연령	27.59	26.60	27.06	27.21	27.91
성별: 여성	0.59	0.62	0.35	0.42	0.46
종교: 있음	0.31	0.26	0.48	0.44	0.47
거주지 규모: 대도시	0.43	0.52	0.32	0.51	0.43
이념: 진보	0.37	0.44	0.23	0.29	0.27
중도	0.50	0.47	0.45	0.54	0.56
보수	0.12	0.09	0.32	0.17	0.17
가구소득: 0~200만 원 미만	0.25	0.15	0.23	0.15	0.14
200~300만 원 미만	0.17	0.15	0.10	0.21	0.11
300~400만 원 미만	0.21	0.20	0.23	0.15	0.15
400~600만 원 미만	0.18	0.22	0.19	0.27	0.29
600만 원 이상	0.19	0.28	0.26	0.22	0.31

(계속)

17) 스캐프투라와 보일(2019)에 따르면 인셀들은 자신들이 여성들과 로맨틱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적 자유주의, 페미니즘, 알파 남성에서 찾는 남성들로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수준: 고졸 이하	0.11	0.07	0.26	0.09	0.03
전문대 졸	0.20	0.16	0.16	0.14	0.19
4년제 졸	0.64	0.71	0.55	0.70	0.69
석사 이상	0.05	0.07	0.03	0.07	0.09
부모자원	2.13	2.30	2.15	2.52	2.53
현재 자기자원	2.66	2.88	2.65	3.03	3.20
주관적 계층의식	4.10	4.93	4.61	5.08	5.54
주관적 계층의식	4.81	5.31	4.81	5.56	6.23
미래 계층이동가능성: 높음	0.16	0.17	0.10	0.28	0.38
(불)공정성인식	3.96	4.05	4.02	3.60	3.84
권위주의적 태도	2.11	2.18	2.46	2.27	2.19
행복	3.79	4.00	3.94	4.01	4.57
스트레스	3.16	3.07	3.16	2.94	2.85
경제활동: 함	0.46	0.56	0.55	0.52	0.66
인원	105	107	31	380	194

<표 3>은 현재 객관적 자원모형의 추정 결과로, 주요 독립변수로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만족집단을 준거로 다른 집단과 비교한 결과 가구소득의 일반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비관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에 비해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유 하면 만족집단 대신 비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교육수준은 비혼집단을 제외한 비관집단, 괴리집단, 안정집단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비관·괴리·안정 집단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만족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감소했다. <그림 2>는 교육집단별로 다섯 개 집단 소속 확률을 보여주는데, 고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청년은 비관집단, 괴리집단, 안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지만, 만족집단에 속할 확률은 극히 낮다. 전문대 졸업자는 비관집단과 만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지만 안정집단에 속할 확률은 매우 낮다.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이상은 비혼집단과 만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종교, 그리고 이념의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여

성이거나 종교가 없거나 진보적일 경우 만족집단에 비하여 비관집단과 비혼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비관집단과 비혼집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결혼과 출산을 크게 꿈꾸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이 가족 가치를 대표하고, 가족 가치가 주로 가부장제, 종교, 보수에서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괴리집단을 준거로 추가분석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대학 졸업자에 비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질 경우,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괴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에서도 보수적일수록 괴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현재 객관적 자원모형: 교육수준과 소득이 결혼과 출산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 만족집단	비관집단	비혼집단	괴리집단	안정집단
연령	-0.019	-0.068*	-0.062	-0.040
성별 - 여성	0.504*	0.583*	-0.363	-0.147
종교 - 있음	-0.600*	-0.896***	0.089	-0.117
거주지 규모 - 대도시	0.211	0.470	-0.402	0.350
이념 - 진보				
중도	-0.564*	-0.699*	-0.229	-0.180
보수	-0.420	-0.828	0.840	-0.105
가구소득 - 300~400만 원 미만				
0~200만 원 미만	0.204	-0.150	-0.285	-0.030
200~300만 원 미만	0.193	0.174	-0.633	0.619
400~600만 원 미만	-0.775	-0.471	-0.832	-0.105
600만 원 이상	-0.793*	-0.306	-0.432	-0.337
교육수준 - 4년제 졸				
고졸 이하	1.083*	0.753	2.548***	1.028*
전문대 졸	0.105	-0.116	0.146	-0.201
석사 이상	-0.376	-0.164	-0.616	-0.163
상수	0.391	1.727*	0.194	1.845
사례 수	815			
Pseudo R^2	0.053			

주: 유의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교육수준에 따른 비관·비혼·괴리·안정·만족집단 소속 확률

다음으로 살펴볼 모형은 현재 보유한 자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력이다. 자신이 보유한 자원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구분해 자기자원 평가, 부모자원 평가,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 등으로 측정하였다. <표 4>는 부모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평가는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자기자원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만족집단에 비해 연애, 결혼, 출산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꿈도 덜 꾸는 비관·비혼·괴리·안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주관적 계층의식 역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만족집단보다는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객관적 자원모형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줬던 교육수준 변수의 영향력이 비관집단과 안정집단에서 사라졌다. 이는 청년이 처한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그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유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¹⁸⁾ 이 결과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현재 직업과 소득 등 객관적 조건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만을 강조하는 포기 담론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18) 다만 괴리집단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교육수준의 효과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여전히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질 경우 다른 집단들보다 괴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이 경우, 새롭게 투입한 자기자원, 부모자원,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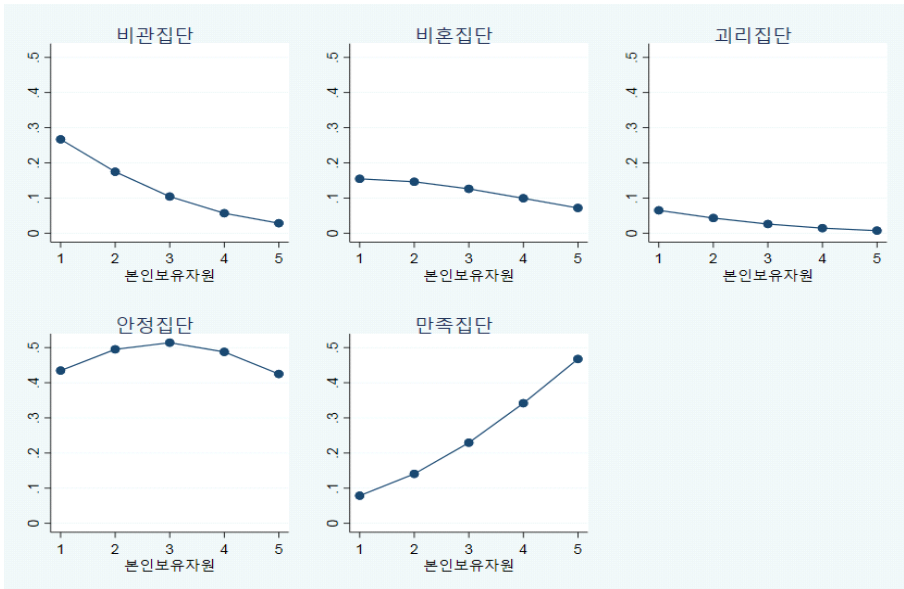
<표 4> 현재 주관적 자원모형: 보유 자원에 대한 평가가 결혼과 출산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 만족집단		비관집단	비혼집단	괴리집단	안정집단
연령		-0.031	-0.078**	-0.077	-0.046*
성별 - 여성		0.320	0.446	-0.606	-0.200
종교 - 있음		-0.336	-0.747**	0.307	-0.050
거주지 규모 - 대도시		0.303	0.537*	-0.244	0.358
이념 - 진보					
중도		-0.616*	-0.749**	-0.233	-0.251
보수		-0.472	-0.876*	0.855	-0.156
가구소득 - 300~400만 원 미만					
0~200만 원 미만		-0.249	-0.375	-0.691	-0.152
200~300만 원 미만		0.036	0.126	-0.703	0.662
400~600만 원 미만		-0.612	-0.399	-0.676	-0.022
600만 원 이상		-0.199	-0.024	0.006	-0.103
교육수준 - 4년제 졸					
고졸 이하		0.569	0.516	2.237***	0.851
전문대 졸		-0.159	-0.243	-0.031	-0.263
석사 이상		-0.244	-0.091	-0.501	-0.138
현재 인식	부모자원	-0.037	-0.111	-0.300	0.217
	자기자원	-1.005***	-0.637**	-0.992**	-0.451**
	주관적 계층의식	-0.555***	-0.219*	-0.321*	-0.211**
상수		6.427***	5.334***	5.784**	3.974***
사례 수			815		
Pseudo R^2			0.092		

주: 유의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은 본인 보유자원에 대한 평가가 집단 소속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

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본인 보유자원이 많으면 만족집단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고 비관·비혼·괴리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본인 보유자원 평가가 안정집단에 대해 갖는 효과는 비선형적인데 스스로 보유자원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안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다가 중간 수준을 넘어서면서 다시 떨어진다. 즉 본인 보유자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면 연애, 결혼, 출산을 바라고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그 같은 낙관적 태도가 본인 보유자원의 수준에 의해 전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혼과 출산 포기에 대한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되며, 저출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본인의 보유자원과 관련 없는 문화적이고 가치적인 차원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림 3> 본인 보유자원 평가에 따른 비관·비혼·괴리·안정·만족집단 소속 확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형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평가가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이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청년이 미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는가에 따라 연애, 결혼, 출산을 꿈꾸고 그 가능성을 점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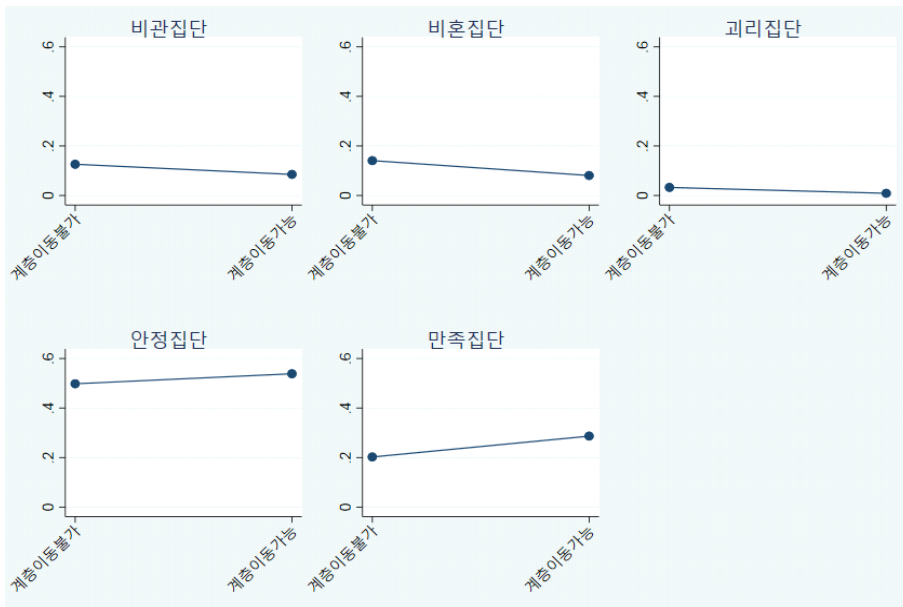
모형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보여주는 변수인 미래 자신의 주관적 계층과 계층 이동가능성을 포함시켰다.

<표 5> 미래 주관적 자원모형: 계층의식과 계층이동가능성이 결혼과 출산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 만족집단		비관집단	비혼집단	괴리집단	안정집단
연령		-0.046	-0.090**	-0.105*	-0.050*
성별 - 여성		0.420	0.462	-0.600	-0.206
종교 - 있음		-0.378	-0.728**	0.362	-0.007
거주지 규모 - 대도시		0.246	0.498	-0.341	0.382*
이념 - 진보					
중도		-0.702*	-0.793**	-0.324	-0.237
보수		-0.407	-0.847	0.905	-0.073
가구소득-300~400만 원 미만					
0~200만 원 미만		-0.184	-0.452	-0.713	-0.223
200~300만 원 미만		-0.122	-0.090	-0.921	0.482
400~600만 원 미만		-0.839*	-0.548	-0.821	-0.142
600만 원 이상		-0.602	-0.193	-0.148	-0.243
교육수준-4년제 졸					
고졸 이하		0.785	0.601	2.396***	0.913
전문대 졸		-0.082	-0.202	-0.011	-0.270
석사 이상		-0.247	-0.101	-0.387	-0.128
미래 예상	주관적 계층의식	-0.557***	-0.362***	-0.566***	-0.276***
	계층이동가능성 높음	-0.739*	-0.903**	-1.654*	-0.270
상수		4.533***	4.756***	4.873**	3.897***
사례수			815		
Pseudo R^2			0.088		

주: 유의도: * $p < .05$, ** $p < .01$, *** $p < .001$.

추정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표 5>에 의하면 자신이 예상한 미래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즉 미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낙관할수록 만족집단에 비해 비관·비혼·괴리·안정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계층이동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한국에서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만족집단에 비해 비관·비혼·괴리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만족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은 안정집단에서는 계층이동 가능성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세 번째 모형에서도 객관적 자원인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의 효과가 괴리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림 4> 미래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에 따른 비관·비혼·괴리·안정·만족집단 소속 확률

<그림 4>는 미래 계층이동 가능성에 따른 비관·비혼·괴리·안정·만족 집단 소속 확률 보여준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리란 전망을 가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낙관적으로 보는 안정집단과 만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층이동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비관·비혼·괴리 집단에 속할 확률은 낮아진다. 현재의 객관적 위치와 보유 자원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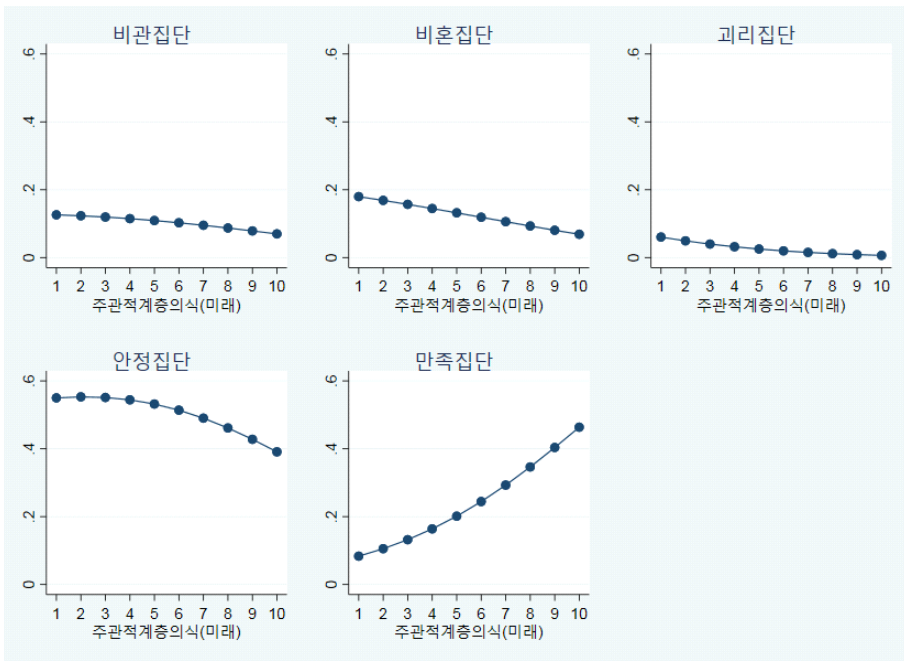
의 결혼과 출산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표 6> 통합모형: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준거: 만족집단	비관집단	비혼집단	괴리집단	안정집단	
연령	-0.040	-0.090**	-0.102*	-0.050*	
성별 - 여성	0.297	0.414	-0.732	-0.203	
종교 - 있음	-0.283	-0.689*	0.407	-0.004	
거주지 규모 - 대도시	0.316	0.532*	-0.229	0.369	
이념 - 진보					
중도	-0.657*	-0.796**	-0.271	-0.280	
보수	-0.466	-0.885	0.943	-0.131	
가구소득 - 300~400만 원 미만					
0~200만 원 미만	-0.354	-0.499	-0.861	-0.234	
200~300만 원 미만	-0.110	-0.063	-0.907	0.560	
400~600만 원 미만	-0.703	-0.525	-0.766	-0.091	
600만 원 이상	-0.279	-0.122	-0.044	-0.154	
교육수준 - 4년제 졸					
고졸 이하	0.557	0.475	2.245***	0.814	
전문대 졸	-0.171	-0.241	-0.013	-0.279	
석사 이상	-0.224	-0.070	-0.387	-0.134	
현재 인식	부모자원	-0.044	-0.099	-0.310	0.209
	자기자원	-0.802***	-0.397	-0.644	-0.305
	주관적 계층의식	-0.392***	-0.030	-0.069	-0.076
미래 예상	주관적 계층의식	-0.256*	-0.297***	-0.437*	-0.228**
	계층이동가능성 - 높음	-0.548	-0.764*	-1.488*	-0.208
상수	6.946***	5.944***	6.947***	4.392***	
사례수	815				
Pseudo R^2	0.088				

주: 유의도: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통합모형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였다. <표 6>에 보고된 추정결과에 의하면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신이 예상한 미래의 계층이다. 자신이 장래에 처할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할수록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꿈과 희망 모두 만족집단에 비해 부족한 다른 네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다른 미래 예상 변수인 계층이동 가능성의 경우 비혼·괴리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력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낮을수록 만족집단에 비해 비혼·괴리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만족집단에 비해 비관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보유한 자원에 대한 평가와 미래 주관적 계층의식이다. 만족집단에 비해 비혼집단과 괴리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 주관적 계층의식과 미래 계층이동 가능성이다. 만족집단에 비해 안정집단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드러진 변수는 없다. 미래에 대한 전망 변수 중 미래 주관적 계층의식만이 유의미하다.



<그림 5> 미래 주관적 계층 의식이 비관·비혼·괴리·안정·만족집단 소속 확률에 미치는 영향

<그림 5>는 청년이 전망한 미래 주관적 계층과 각 집단에의 소속 확률 간 관계를 보여준다. 미래에 자신이 높은 계층에 속할 것이라고 믿을수록 만족집단에 속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 반면 비관·비혼·괴리집단에 속할 확률은 미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아질수록 소폭 감소한다. 여기에서 청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모형에서 유의미했던 현재 보유한 자원 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과 자기자원 변수의 효과가 비혼·괴리·안정집단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객관적 자원인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객관적 자원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청년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주관적 인식에서도 현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결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유의할 것은 꿈도 희망도 없는 비관집단이다. 이 집단은 비혼·괴리·안정집단과 다르게 현재 인식인 자기자원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삼포세대의 전형인 이 집단이 가진 깊은 절망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효과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괴리집단 역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통합모형에서도 괴리집단을 기준으로 삼아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교육수준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줬다.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고졸 이하인 청년들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괴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괴리집단과 비관집단 및 비혼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 역시 포착할 수 있었다. 남성이고 보수적일수록 비관·비혼 집단에 비해 괴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보수적인 남성 청년을 중심으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꿈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집단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요약과 정책적 함의

이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혼외출산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결혼 내 출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현재와 미래 상태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이다(Ryan and Deci 2000).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청년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출산을 목표를 제시하는 등 인구학적 경로를 중시하여 대중적인 처방에 의존한 결과 청년 또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물론 2016년 이후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와 비용지원 대신 실천과 인식 중심으로 접근법을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기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은 분석을 통해 객관적 자원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꿈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관적 인식에서도 현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과 불안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분석에서 미래에 예상하는 계층 위치와 사회이동 가능성을 통제했을 때 현재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판단하는 청년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출산과 결혼을 선택지에서 치워버리는 것이다. 기존 연구가 청년의 현재 사회경제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 결혼 포기과 출산 기피를 설명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논의와 정책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했던 부모와 달리 청년 대다수는 비혼과 비출산을 구조적으로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년 집단 계층화와 이질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러한 구조적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부종욱·이상엽·이휘웅 2017; 이태형 2015). 우선 부모가 사회경제적 자원을 지원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년은 미래를 계획하고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하루하루의 생존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현재와 더불어 미래도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확고한 전망을 가진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서로 영향을 주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생 경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청년의 결혼 연기와 포기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철희(2018)는 2005년 이후 시행되었던 출산장려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비판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혼 여성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공헌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혼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여성 인구 유배우 비율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상쇄되었다. 이철희(2018)는 2016년 기준 기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23으로, 저출산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것은 출산율 자체의 문제보다도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년의 마음을 읽어야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청년의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은 비혼이나 무자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 저출산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전체 생애의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결혼-출산-양육-교육-노후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므로 생애 과정 전체를 고려한 정책적 시각이 요구된다.

결혼은 강제적인 정책 수단으로 달성될 수 없는 정책 목표이며, 미혼남녀 개개인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장기적이고 간접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 비혼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나고, 저출산 현상이 개인의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면 그러한 결정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저출산대책을 홍보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탁현우 2020).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이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이 청년에게 큰 위협이면 그것이 위협이 아닐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출산정책의 중심에는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보육정책이 있으며, 저출산정책 예산의 절반 가량이 영·유

아 보육료지원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아주 미미한 도움 정도로 여겨지는 정책으로는 한 개인의 출산 선택을 촉진하기에 역부족이다. 여전히 개인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절대적인 현 상황에서 한 인간의 생애 과정을 아우르는 견고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16. “왜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 되었나?: ‘능력주의 커뮤니케이션’의 심리적 기제.” 《사회과학연구》 55(2): 319-355.
- 구재선·서은국. 2015. “청소년의 내재적 가치 지향과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미래 행복의 관계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317-338.
- 권경우. 2016. “한국 청년세대 담론의 지형도.” 《교양학연구》 3: 7-44.
- 김석호.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4: 289-331.
- 김선기. 2019. 《청년팔이 사회》. 오월의 봄.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창인·전병찬·안태연. 2019. 《청년현재사》. 시대의 창.
- 도미향. 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변수정. 2017.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보건복지포럼》 45-60.
- 부종욱·이상엽·이휘웅. 2017. “청년세대의 꿈: 다시 꿈을 꿈꾸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87-300.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신윤정. 2017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344: 1-8.
- 2020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이 분석.” 《보건사회연구》 40(3): 534-562.
- 신윤정·이명진·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계숙. 2013.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 희망자녀수와 출산시기.” 《한국가정과교육학회》 123(3): 141-151.
- 이유리·이성훈·박은정. 2017. “예코세대의 연애 및 결혼, 출산 및 양육의 자신감에 대한

- 결정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8(4): 101-116.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을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이태형. 2015.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월간복지동향》 196: 12-16.
- 장경섭. 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1-2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 정성호. 2009.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과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48(2): 1-22.
- 정해식. 2020.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34-48.
- 조홍식.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023&code=11171316&cp=du>.
- 주휘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 통계청. 2019. “2019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동향》.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2020.12.17.)” 《월간 복지동향》 267: 64-67.
- 최영미·박운환. 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시민인문학》 36: 101-137.
- 탁현우.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23-24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한금윤. 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언론 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 7-29.
- 함인희. 2018.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이 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7172: 104-116.

Coleman, J.S. 1990. *Equality and Achievement in Educa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Deci, E.L. and R.M. Ryan.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Erikson, R. and J.O. Jonsson (eds.). 1996. *Can Education Be Equalized?: The Swedish*

- Ca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Giddens, Anthony.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 Gottfredson, L.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Kasser, T. and R.M. Ryan.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im, S., H. Kim, S. Lee, E. Kim, and O. Gowen. 2018. "Lack of Dream-Capital among Korean Youths: Rationally Chosen or Culturally Forbidden?" *Development and Society* 47(3): 347-370.
-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6. "The Low-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67-192.
- Morse, Stan and Kenneth J. Gergen.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1): 148-456.
- OECD. 2020.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 (Accessed on 21 October 2020).
- Ryan, R.M. and Deci, E.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접수 2022.05.19; 수정 2022.05.19; 게재확정 2022.05.24>

A Socio-psychological Approach to Low Fertility: Who Can't, and Why Can't They Dream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Seok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perceptions of Korean young people on marriage and childbearing, and why abandonment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is motivated. The current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awareness of harsh reality and anxiety about uncertainty of the future as well as the scarcity of available resources in order to explain the abandonment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In addition to the original focus of youth discourse on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job and family income it was assumed that considering socio-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perception of harsh reality and dreams and future prospects would als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abandonment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Our analysi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anxiety about an uncertain future as a factor in explaining abandonment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by young people, besides the scarcity of socioeconomic resources such as jobs and family income. It was also shown that subjective perception of one's present and future has a greater effect on the dream and possibility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of young people, rather than objective possession of resources. In particular, controlling the forecasted future class lo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mobility canceled out the effect of objective and subjective perceptions about the present. This implies that young people who judge the future based on the present tend to leave marriage and childbearing out of consideration due to the difficulty of forecasting the future. Pessimism for the future leads to abandonment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by young people. Accordingly, it is noteworthy to point out that policy enforcement for young people to possess an optimistic forecast about the future and a sense of security is required the most for solving the issue of low fertility.

Key words: young generation, marriage, socioeconomic inequality,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 support by parent, childbearing, low fertility, abandonment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prospect for future among young people